

YEAA2002summer 비엔나 건축 답사

## 젊은 건축가들의 만남

### Young Architects Society

이병훈 Lee Byong-Hun YEAA 멤버, 비엔나공과대학 건축학과 대학원

이병훈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하여 현재 비엔나공과대학 건축학과 대학원에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젊은 건축가들의 모임인 YEAA의 회원으로 금번 YEAA2002summer 비엔나 건축 답사를 함께 했다. 연락처는 +43-676-938-9113, 이메일은 e9726313@hotmail.com이다.



1. Canal Himmelfahrt, Wegmanstrasse, 1210 Wien
2. Compact City, BUB-Architects, Zornhubergasse 101, 1210 Wien
3. Kirdberger, BUB-Architects, Dudenstrasse 163, 1100 Wien
4. Hölzlhaus, Ernst Wever, Lantzi Platz, 1070 Wien
5. DelagatAlteat, Vintbergergasse 14, 1070 Wien
6. Penthouse, House Steiner, Josephstadt, Eybengasse 48, 1130 Wien
7. Langbahn I, BWS-3, Garschniggstrasse 109, 1145 Wien
8. Villa Semplich, BWS-3, Mauerstrasse 10, A-1140 Wien
9. SP-ONE, BWS-3, Farnberggasse 10, 1100 Wien
10. Karl-Herrn-Hof, Karl Elm, Heiligenstädter Straße 82-82, 1180 Wien
11. Frauenstrasse, Dieter Henschel/Markus Schwaner, Frauenstrasse 30, 1170 Wien
12. SP3, Queckhaff, Spangenberg 21, 1180 Wien
13. Am Steinfeld, Kriehel, Otto Wagner, Ankerstrasse am Steinfeld, 1140 Wien
14. House am Filzberg, Marc Gilbert, Filzberggasse, 1140 Wien
15. Am Kumpel, Schuler, Hermann Ruttler, Kumpelgasse 21, 1140 Wien
16. Neubausiedlung, Adolf Löss, Josef Hoffmann, Josef Frank, u.a. n., Veltlingergasse 71-117, 1130 Wien
17. Siedlung Steinhilber, Roland Rainer
18. Hermann Ruttler, Brunnenstrasse 28-32, 1200 Wien
19. Geometrie, Coop Himmel(b)laus, Wilhelm Hoesbauer, Jean Nouvel, Manfred Mohr/Markus Schwaner, Eybengasse 12, 1130 Wien



지금은 유럽의 작은 나라가 되어버린 오스트리아. 그러나 전 유럽의 흥망성쇠를 지고 있던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나라이기도 했다. 이미 3백60년 전 여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칙령을 만드는 정치적인 혁신이 있었고, 왕가의 서고를 개방하고 또한 자신들의 소장 미술품들을 모아서 국립도서관과 미술관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공개한, 제국의 특권을 국민 다수와 나누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한편 영화스타 아들드 슈왈츠제네거(A. Schwarzenegger)와 게르만 민족의 통합을 주장했던 아들 프 히틀러(A. Hitler), 가까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나라였다. 그리고 그 제국의 수도 비엔나. 우리에게는 비엔나 커피, 비엔나소시지로 더 익숙하지만 이곳은 많은 문화와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정치적으로는 프란츠 요제프(F. Joseph) 황제의 아들 프란츠 페르디난트(F. Ferdinand) 대공(大公)이 사라에 보에서 저격됨으로써 시작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과 그 뒤처리 문제를 위해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곳이다. 문화적으로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왈츠를 만든 요한 슈트라우스(J. Strauss), 8살 때 교향곡을 작곡한 신동 모차르트(W. A. Mozart), 그리고 바흐(J. S. Bach), 하이든(F. J. Haydn), 쇼팽(F. Chopin), 슈베르트(F. P. Schubert) 등 당대 음악의 거장들의 활동 무대였다.

그리고 건축.

이러한 시대와 역사 속에는 그 시대와 역사를 담은 문화가 있다. 하루를 움직이다 보면 많은

건축물을 만나게 된다.

슈베덴광장(Schweden Platz)에서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루프 레흐츠성당(Ruprechtskirche)>을 본다. 그리고 시내의 가장 중심을 가면 고딕 양식의 <슈테판성당(Stephansdom)>이 있다. 보행자 도로를 걸어서 비엔나공과대학을 가면 그 왼편에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인 <카를스성당(Karlskirche)>이 있다. 집으로 가다보면 또 항상 보게 되는, 건축사들이 로مان티시즘으로도 분류하는 <포티브성당(Votivkirche)>을 본다.

정상에 오르고 최고를 맛보게 되면 더 이상 최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건축도, 정확히 말하자면 건축가도 이런 각 시대사조의 최고의 작품을 접하다보니 하나의 형태나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경향에 연연해하지 않나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근대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유겐트 스타일(Jugend Stil)이 나온다. 과거의 형태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분리를 주장하던 젊은이들이 세션(Sezession)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 세션의 정신이 건축을 하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유겐트 스타일이라는 경향을 만들어가게 된다. 오토 바그너(O. Wagner)는 새로운 패턴과 문양을 만들어가고 아돌프 로스(A. Loos)는 "장식은 죄악이다"라고 말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모인 7개국의 젊은 건축인들로 구성된 YEAA-Architects(이하 YEAA)는 이런 맥락에서 젊은이들의 건축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점점 무너져가

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시간의 간격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의 시대에 서 있다. 더 이상 장소는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단지 선택의 자유의 여지만을 남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YEAA에서는 건축 답사, 워크숍, 강연회, 전시회 등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의 만남을 만들어 간다. 그 첫 프로그램으로 YEAA2002summer 비엔나 건축 답사를 통한 만남을 추진한 것이다.

금번 YEAA2002summer 비엔나 건축 답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만남이었고, '새로운 주거 형태(New Spirit- Housing)' 라는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초청된 건축가들이나 팀 역시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었다. 즉, 지금 이 시간 오스트리아의 젊은 건축가(팀)와 주거 건축을 보고자 한 것이다.

YEAA는 젊지만 이미 자신의 건축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건축가들을 젊은 건축가(팀)로 선정했다. 총 7개팀을 선정했는데,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Gerner \* Gerner Plus), 버스 아키텍츠(BUS-Architects), 델루간 & 마이슬(Delugan & Meissl), 풀 아키텍츠(Pool-Architects), 베카카 드라이(BKK-3), 크베어크라프트(querkraft), 어번 피쉬(urbanFish) 등이 그들이다.

현재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젊은 건축가들은 팀 작업을 한다. 팀 작업이란 소장이 1인이고 나머지는 직원이라서 소장이 계획 스케치를 잡아 주면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는 몇 명의 건축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직원(이하 동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건축가 직원으로 나누지 않고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계획하고 토론한다. 작품은 팀의 이름으로 나가고 건축가와 도운 사람(동료)의 이름이 다 공개된다. 이를테면 한 팀(팀명)에 건축가 A와 B, C가 있다(C는 아직 건축사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번 X프로젝트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가 D와 학생 E를 불렀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 Z가 X프로젝트를 D와 E와 함께 했다"라고. 한 팀 안에서는 자격에 관계없이 같

은 권리와 같은 발언권을 갖는다.

먼저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구조로 건축을 풀어나가는 팀이다. 특히 철골 구조의 디테일 처리가 뛰어나다. 버스 아키텍츠는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의 조화로운 배치와 해석이 인상적이다. 델루간 & 마이슬은 도심 고밀도 지역에서의 건축공간의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풀 아키텍츠는 공간의 수직적 연속으로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외부의 형태로 그대로 드러낸다. 베카카 드라이는 바닥과 천장에 경사를 만들어 다양한 규모의 내부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경사면을 창조적인 공간으로 이용한다. 크베어크라프트는 건축 재료 선택 폭의 제한성과 건축법의 제한선을 넘나들며 문제 요소를 해결하면서 건축의 돌파구를 찾는다. 어번 피쉬는 콘크리트도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온 재료라고 말하며 도시적 랜드스케이핑의 방법으로 기존 도시에 대한 선입관을 바꾸어나간다. 하지만 이들 외에 몇몇 젊지 않은(?) 건축가들도 초청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직은 낯선 오스트리아 건축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사는 철저한 건축가(팀)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자들도 역시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었으며, 몇몇 건축가(팀)들의 건축 이론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비엔나라는 장소의 맥락에서 발전해 온 소치알본바우(Sozialwohnbau, 영문으로 표기하면 Social Housing으로 일종의 시민아파트이다),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두번째 도시 그라츠(Graz)에서의 주거의 시도도 살펴보았다.

금번 만남은 처음 시도한 것이라 준비가 다소 미흡했지만 현재의 오스트리아 젊은 건축가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한 이들의 앞으로의 건축 활동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금번에 답사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젊은 건축가들의 면면을 한국 건축인들과 나누



1. 비엔나 시에서 답사한 건축물들  
2, 3, 4.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Gerner \* Gerner Plus), 《하우스 쾨트제(Haus Suedsee)》, 2001년  
5, 6. 버스 아키텍츠(BUS-Architects), 《콤팩트시티(Compact City)》, 2001년  
7, 8, 9. 버스 아키텍츠, 《10구 시립유치원(Kindergarten d. Stadt Wien)》, 1999년



고자 한다.

### 비엔나와 그 주변의 주거, 그리고 건축 |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 건축가팀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두 사람이 팀으로 일한다. 안드레아스 게르너(A. Gerner)와 게르다 마리아 게르너(G. M. Gerner) 제씨가 그들이다. 이 두 사람은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당시 같이 작품을 했고, 졸업 후에 같이 사무소를 차리게 되었고 또한 결혼을 했다고 한다. 현재 2명의 아들이 있다. 동료는 서너 명이 있는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1998년 비엔나 건축축전상을 수상했고, 오스트리아 철건축상(1997년, 2002년)을 두 차례 수상했다.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와의 만남은 둘째 날인 8월 13일 오전에 이루어졌다(첫째날은 비엔나 시를 자유 답사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비엔나를 벗어나 부어겐란트(Burgenland) 주의 요이스(Jois)로 갔다. 방문한 작품은 <하우스 쥐트제(Haus Suedsee)>(2001년).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이 작품으로 2002년 철건축상을 받았다. 건축가 게르다 게르너가 우리와 동행을 해주었고, 미리 건축주에게 연락을 해서 실내 방문에 대한 허락을 받아두었다. 건축주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오픈된 사고의 소유자로 뭔가 특이한 건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한다.

부어겐란트 지역은 포도주와 노이지들러(Neusiedler) 호수가 있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지역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건축의 시도는 더욱 쉽지 않은 곳이다. 이곳 주위의 집은 전부 박공지붕이다. 건축법이 그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게르다 게르너(이하 게르너) 씨는 관청을 설득하여 지금의 완만한 경사의 지붕을 박공으로 인정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냈다고 한다. 벽체 구조는 목조이고 그 위에 아연판을 덧댔다. 왼쪽의 필로티 된 부분이 주인침실, 거실, 주방이고 오른쪽 박스(건축가는 '모니터'라고 부른다)는 아이방, 손님방, 운동실이다.

<하우스 쥐트제>에 이르자 게르너 씨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참가자들은 추위에 떨어가면서도 스케치를 하고 건축가의 설명을 노트하는 열정

을 보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전통이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여하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게르그 씨는 전통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성에 대해서는 "이 작품에서의 지역성이라면 멀리 보이는 노이지들러 호수의 수평선으로부터 작품에 수평띠를 썼다는 것과 이 지방의 건조식물을 벽 내부의 단열재로 썼다는 것, 그리고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지금의 완만한 경사 지붕으로 함으로써 주위의 다른 주택에 적용되어 있는 박공과 유사하게 처리한 점 등"이라 말했다—이 지역은 건축법상 지붕을 박공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위의 주택들은 박공 형태의 지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이들은 경사 지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박공으로만 지어야 함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이 집의 지붕은 박공이라 설득(?)해만 했던,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게 되었던 에피소드가 있다. 또한 이 대답에 앞선 설명을 통해 "앞의 필로티 된 부분은 이곳의 지역성 때문이다.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더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밑을 띄우고 건물의 측면을 얇게 했다. 그리고 바람이 건물의 필로티 부분을 감아 돌며 빠지기 때문에 건물을 식히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외장재인 아연판은 표면 저항이 낮은 아연을 썼다. 이것은 배가 물을 가르기 쉽게 제작되는 것처럼 바람이 빨리 미끄러져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언급했다.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철 구조만을 고집한다. 자신은 벽돌로 지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설계의 접근을 구조로 시작해서 구조로 풀어나간다. 철의 형태의 자유로움과 프리-패브리케이션(free-fabrication)과 현장 조립 등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은 이러한 철을 통한 작업으로 2번의 철건축상을 받았다.

### 버스 아키텍츠

두번째 건축가팀 버스 아키텍츠의 작품 <콤팩트 시티(Compact City)>(2001년)와 <10구 시립유치원

(Kindergarten d. Stadt Wien)>(1999년)에 대한 답사는 게르너 게르너 플러스 작품에 대한 답사에 이어 8월 13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버스 아키텍트는 라우라 슈피나들(L. P. Spinadel), 클라우디오 블라치카(C. J. Blazica), 라이너 탈릭스(R. Lalic) 제씨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팀으로, 이들은 <콤팩트시티>로 지난 1998년 오토 바그너 도시계획상을 받았다.

버스 아키텍츠의 <콤팩트시티>는 특이한 점이 있다. 그들은 먼저 계획 대지에 가장 적합한 설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건축주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의 작품을 인정해주는 건축주를 찾았다고 한다. <콤팩트시티>는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인데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다. 어번 플레이트(urban plate)를 중심에 두고 위를 주거 지역으로, 아래를 상업시설로 만들었다. 그리고 뒤에다가 사무실 건물군을 붙였다. 이들은 아래의 상업시설의 지붕이 되어서 전체 프로젝트를 덮는 데크(deck)를 어번 플레이트라고 부른다. 3백47가구, 사무실 22개, 아파트 12개, 작업장 10개, 주점 3개, 상점 등이 어우러진, 복합 용도를 아주 잘 짜맞추면서도 질 높은 환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어번 플레이트의 위에 있으면 어느 한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낮은 연립주택이 있고 조그마한 상점들이 군데군데 있으며 유치원과 잔디밭,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하러 갈 수 있는 노천카페가 있다.

건축가 라우라 슈피나들 씨가 사정상 현장에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서 잠시 머물다 버스 아키텍츠의 다른 작품 <10구 시립유치원>을 방문하러 갔다. 도착하자 유치원 원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들에게 자기를 유치원은 다 문화(多文化, multi-culture)를 주안점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며, 요즘 국수주의로 흐르는 유럽의 경향을 잠시 빗대어서 말했다. 그리고 각 실들을 설명해주고 나서 갈 때 '환영합니다'를 한글로 써 달라고 하기도 했다.

<10구 시립유치원>은 주도로와 공원 사이에 있다. 버스 아키텍츠는 이러한 점을 활용,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양쪽의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양쪽 벽을 유리를 사용하여 오픈했다. 부

속실들은 도로 면에, 교실은 공원 쪽에 두었으며, 각 교실에서 바로 외부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옥상에는 무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했고, '나무집'이라고 부르는 활동실을 목재 마감을 특이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호감을 갖도록 처리했다. 그리고 건축가는 항상 밑에서만 세상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기 위해 계단실의 참을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 델루간 & 마이슬

8월 13일에 찾아간 또 하나의 팀이 델루간 & 마이슬이다. 델루간 & 마이슬에는 건축가 델루간 마이슬(E. D. Meissl)와 로만 델루간(R. Delugan) 제씨가 팀 작업을 한다.

델루간 마이슬 씨는 딸아이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었다. 거대한(?) 건축가라기보다 이웃의 수다쟁이 아줌마 같다는 느낌에서 왠지 웃음이 나왔다. 우리가 방문한 <빔 베르거가세 주거(Wimberggasse Haus)>(2001년)는 몇 가지 특색이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로면의 파사드에 녹지를 계획하고 싶었는데 건축법상 불가능하여 대신 유리 패턴을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치 넝쿨이 얽힌 듯한 이미지를 딱딱한 도시의 아파트에 넣었다. 이후 이런 유리 패턴을 도나우 섬에 있는 델루간 & 마이슬의 다른 작품에서도 보게 된다. 그리고 발코니. 발코니는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부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크기인데 이들은 공간이 좁게 느껴지지 않게 발코니의 반을 위층으로 띄워서 수평으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만들어 좁지 않은 느낌의 공간을 확보했다. 한편 호프(hof) 쪽에는 지그재그로 경사지며 내려가는 옥상정원이 있는 사무실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경사가 얽히는 지붕의 선을 살리기 위해서 난간을 통유리뿐만 지지대를 만들었다.

YEAA의 협력 단체인 건축컨설파트 인 프로그레스(in progress)에 의하면, <뉴욕타임스>가 네덜란드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게재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오스트리아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



1, 2. 델루간 & 마이슬(Delugan & Meissl), <빔 베르거가세 주거(Wimberggasse Haus)>, 2001년  
3, 4, 5. 풀 아키텍츠(Pool-Architects), <슈파이싱 주택(Einfamilienhaus Speising)>, 1999년  
6, 7. 풀 아키텍츠, <펜트하우스(Penthouse)>, 1999년  
8. 풀 아키텍츠, <아인노에 주택(Haus Einnoede)>, 2002년  
9, 10, 11. 풀 아키텍츠, <트루마우(Trumau) 철물공장>, 2000년



1.



2.



3.



5.

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델루간 마이슬 씨의 작품을 취재해갔다고 한다.

### 풀 아키텍츠

풀 아키텍츠는 베카카 드라이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젊은 건축가팀들 중 하나이다. 원래 풀 아키텍츠와 베카카 드라이는 베카카 츠바이(BKK-2, 1995년 설립)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을 가진 2개의 팀이 되었다. 풀 아키텍츠에는 크리스토프 램머후버(C. Lammerhuber), 에벨린 루드니키(E. Rudnicki), 플로리안 발뇌퍼(F. Wallnoefer), 알렉스 린네마이어(A. Linemayr) 이상 4명이 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필요에 따라 동료들을 구한다.

우리는 우선 풀 아키텍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8월 14일). 공장 같이 넓게 트인 공간에 큰 책상에 한 명씩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플로리안 발뇌퍼 씨는 우리와 함께 다니며 작품을 설명해주었고 다른 3명은 작업을 계속했다. 풀 아키텍츠는 공간의 연결과 얽힘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 플로리안 발뇌퍼 씨에 따르면 그들은 디테일보다는 공간을 만드는 데 더 치중을 한다고 한다. 내부의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 외형은 자연스레 형성된다. 이들의 건축은 평평하지 않다. <슈파이스링 주택(Einfamilienhaus Speising)>(1999년)에서 보면 주차장, 거실, 침실과 옥상이 하나로 얽혀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고 그것이 그대로 형태로 나타난다.

풀 아키텍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는 이들이 설계한 <펜트하우스(Penthouse)>(1999년)가 있다. 버려진 물탱크실을 원룸으로 개조한 작품이다. 50㎡ 크기의 실에 필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침대와 식탁, 옷장을 벽에 넣고 뺄 수 있게 했으며 냉장고는 천장에 달고 텔레비전은 방과 화장실에서 볼 수 있도록 회전식으로 설치를 했다. 그리고 실(室)은 작지만 전체 옥상을 앞마당으로 쓸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건물의 옆을 증축하면서 내부를 하나로 만든 주택 작품 <아인노에 주택(Haus Einnoede)>(2002년)를 방문했다. 건축가들은 빨간색 박공지붕인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게 하면서

더불어 증축 부분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했다. 풀 아키텍츠는 공간의 꼬임을 통해서 기존의 건물과 증축되는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는 것을 시도한다. 입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집이지만 건축주 아주머니는 흔쾌히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허락했다. 거기다 열심히 자신의 집을 설명했다. 그녀는 계획 과정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건축가와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집을 얻었다며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었다.

주거건축은 아니지만 지나는 길에 풀 아키텍츠의 공장 프로젝트인 <트루마우(Trumau) 철물공장>(2000년)을 들었다. 한적한 시골에 있는 공장으로 건축주는 일과 시간 후에 이웃들과 한 잔 할 수 있는 바(bar)도 원했다고 한다. 그래서 입구 부분에 경사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바가 있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여기에 쓰인 주된 건축 재료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철판이다. 실내와 실외를 모두 이 철판을 가지고 만들었다. 외부에 있는 철판은 1년여가 지나면서 부식이 되어서 붉은 빛을 띠게 되었다.

### 베카카 드라이

베카카 드라이는 앞서 말했듯이 1999년에 베카카 츠바이로부터 분리되었다. 프란츠 슈미츠(F. Summitsch)와 요한 빈터(J. Winter) 제씨가 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젊은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동료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3~6명을 모은다.

이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르파브리크(Sargfabrik)>(1998년)은 옛 관을 만드는 공장을 상징적인 옛 굴뚝을 남겨 놓은 채 주거단지로 바꾼 것이다. 모든 계획을 주민과 함께 했다. 주민과의 유대와 공동생활을 컨셉으로 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벌였다. 때로는 30~40명의 주민과 함께 모여 토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긴 계획 끝에 각각의 호별로 입주민이 원하는 실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건축은 비엔나 시의 지원 하에 지어진 소치알본바우이다.

소치알본바우는 사회 복지와 관계가 있다. 왜

나하면 사회주의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게 됨으로써 비엔나 최초의 소치알본바우인 <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를 1923년에 짓게 된다. 이들의 생각은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성의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해 탁아소, 세탁소 등을 전체 1km 길이의 건물 내에 만든다는 것이었고, 남성의 비참한 노동 환경에서의 해방을 말하며 비참한 주거 환경에서 해방을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주거공간의 최소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두어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고 그 좁은 공간의 고효율성을 위해서 현대식 부엌을 개발하는 등 사회주의 정부 정책의 선상에 있었다.

이 소치알본바우가 최근 2001년에 완공된 <가소메터(Gasometer)>에서 보면, 시 정부가 건축가 되어서 쿽 힘멜블라우(C. Himmelblau), 빌헬름 홀츠바우어(W. Holzbauer), 장 누벨(J. Nouvel), 만프레드 베도른(M. Wehdorn)에게 설계를 맡겨 건축의 질을 확보했다. 그러면서도 임대료를 일반 서민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낮추어 서민들도 호화로운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영아파트가 아니라 민영아파트라도 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최고로 m<sup>2</sup>당 5백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 대신 시 정부는 주택의 임대료를 서민주택의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 최근 자하 하디드(Z. Hadid)나 쿽 힘멜블라우 등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서 시 정부 보조 민영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비엔나 소치알본바우의 질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룩파브리>도 여느 서민아파트와는 다르다. 언젠가 건축 행사에서 비엔나 시 주택 관계자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서민들도 호화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 시의 소치알본바우의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아닌가 한다. <자룩파브리>은 이 목표를 가지고 시 정부와 건축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는데, 이 시설은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식당,

카페, 공연장과 청소년 클럽 등이 있으며, 옥상은 녹지로 둘러싸인 ‘숲’이다.

북도 쪽의 큰 창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역시나 건축가가 의도한 대로 서로가 오픈하여 좋은 우대 관계를 맺는 데 기여를 한, 서로의 삶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다. 건축가는 이 작품으로 오토 바그너 도시계획상을 받았다. 우리와 함께 한 건축가 프란츠 슈니츠(Franz Summitsch) 씨도 여기서 살고 있다. 사진에서 메조 네트형의 건축가의 집을 볼 수 있다.

<자룩파브리> 이후 베카카 드라이는 두번째 작품 <미스 자룩파브리(Miss Sargfabrik)>을 만들었다. 이 두번째 작품에서는 <자룩파브리>에서 필요로 했던 그 많은 조정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하며, 이들은 그러한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스 자룩파브리>(1998년)에는 1개층 1실형과 2개층 1실형, 3개층 1실형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층을 연결하는 곳에 경사지가 있다. 건축가들은 이 건물 실내에서의 경사진 바닥과 천장 면을 죽은 공간(dead space)이 아니라 창조적 공간(creative space)라 말한다. 거주자들이 이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 결과로 활용에 대한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공간이 나머지 공간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미스 자룩파브리>에는 2개 층으로 된 주민공동공간이 있다. 아래층에서 위층을 올라갈 때는 마치 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는 공동 부엌, 세탁실, 도서관, 세미나실 등이 있다. 각 단위주거에 들어갈 시설을 이러한 공동공간에 모아놓으면 각 단위주거에서는 그 만큼의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소치알본바우의 생각이다.

#### 크베어크라프트

크베어크라프트는 야곱 둥클(J. Dunkl) 게르트 에어하르트(G. Erhart) 페터 슈납(P. Sapp) 미카엘 친너(M. Zinner) 등 4명의 멤버가 공동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프로젝트에 따라 동료를 구한다. 현재 동료는 8명. 이들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팀으로 아주 유쾌하게 일을 한다.



1, 2 베카카 드라이(BKK-3), <자룩파브리(Sargfabrik)>, 1998년  
3. 최초의 소치알본바우(Sozialwohnbau) <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 1923년  
4, 5, 6. 쿽 힘멜블라우(C. Himmelblau), 빌헬름 홀츠바우어(W. Holzbauer), 장 누벨(J. Nouvel), 만프레드 베도른(M. Wehdorn) 등이 설계한 소치알본바우 <가소메터(Gasometer)> (2001년)  
7, 8, 9. 베카카 드라이, <미스 자룩파브리(Miss Sargfabrik)>, 1998년



많은 동료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한번씩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그 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한다.

크베어크라프트는 좋은 건축, 고객에 대한 서비스, 다양한 정보와 상담, 놀라운 건축적 해결, 재료의 독특한 사용을 통해서 '삶의 기쁨의 증가'를 만들어간다. 이들은 효율적인 저렴한 건축이라는 방향성 아래에서 '앞으로' 또는 '이상한 생각'이라는 뜻의 *quer*와 '힘'을 의미하는 *kraft*라는 단어를 합쳐서 범상하지 않은 힘을 뜻하는 '*querkraft*'라는 신조어로 팀의 이름을 지었다.

이들의 모토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은 건축주의 돈을 절약하게 한다. 우리는 각양각색이다. 우리는 건축의 새로운 세대, 즉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서비스하는 자, 조형가, 감독으로 보는 신세대 건축가에 속한다. 그리고 일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삶의 질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오스트리아 일간지 <Der Standard> 2000년 4월 2일자, 우테 볼트론(U. Woltron) 기자)

<SPS 주택(SPS Einfamilienhaus)>는 녹지 과수원 지구에 지어진 주택으로 그 지역의 건축법 때문에 현재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지역은 과수가 많고 주택은 주말주택 같이 규모가 작다. 왜냐하면 여기는 넓이가 아니라 부피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SPS 주택>의 지붕의 우주선 같이 생긴 실이 사실은 주위의 작은 집들처럼 건축법이 허가하는 최고의 부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아래의 실들은 언덕을 깎아서 만든 원칙적으로는 지하실이다. 건축주는 건축과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건축가라서 건축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건축주는 개인적으로는 아키그램(Archigram)의 건축에 관심이 많은데다가, 1970년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동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건축에 적합한 건축가를 찾다가 크베어크라프트를 만나게 되었다. 건축주는 작은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기존의 건축가보다는 젊은 건축가들과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 그라츠의 주거와 건축

마지막 날(8월 16일)

에는 오스트리아의 두번째 도시 그라츠를 방문했다. 그라츠는 구 시가지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움을 가진 동시에 1980년대를 전후로 많은 건축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서 그라츠 학파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 도시이다.

그라츠 시의 답사를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 콘 아키텍츠(Con: Architects)가 진행했다. 콘 아키텍츠에는 베른트 크날러블라이(B. Knaller-vlay), 디이터 슈파트(D. Spath), 그리고 하이디 프레터호퍼(H. Pretterhofer) 이상 3명의 건축가들이 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라츠 공과대학 출신들이다. 이들이 우리와 동행을 하며 그라츠의 건축을 소개해주었다. 콘 아키텍츠는 현재 유럽의 40세 이하의 젊은 건축가들의 현상설계기관인 유로팡(EUROPAN)의 오스트리아 대표 사무소이기도 하다. 콘 아키텍츠의 멤버들은 유로팡 현상설계에 당선된 경력도 있고, 비엔나공과대학과 비엔나순수예술학교에서 설계 강사를 지낸 적이 있기도 하다.

그라츠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건축가 한스 강골리(H. Gangoly)의 작품 <하랄드 사이코(H. Seiko) 사무실>(1999년)과 <시립 방앗간 개조 주택(Ehemalige Stadtmuhle)>(2000년)이었다. 한스 강골리는 그라츠공과대학 출신으로 동대학 키티 도메니크(G. Domenig) 교수의 연구소(Institut)에서 학생들에게 설계를 가르친 적이 있기도 한 건축가이다. <하랄드 사이코 사무실>은 1층에 건축가 하랄드 사이코(H. Seiko)의 사무실이 있는 주거동의 외부공간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좁은 발코니를 두는 테크닉을 쓴 건물이고, <시립 방앗간 개조 주택>은 기존의 방앗간의 목구조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콘크리트와 철을 적절하게 조합시켜 주거로 개조하여 특이하고 훌륭한 공간을 만든 건물이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영국 아키그램의 멤버인 피터쿡(P. Cook)의 <그라츠 아트홀>(공사 중). <그라츠 아트홀>은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서 시 정부가 설계를 건축가 피터 쿡에게 맡긴 작품이다. 그라

츠는 2003년 유럽의 문화 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 정부는 2003년에 많은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 정부는 이 작품이 그라츠에 〈벨바오 구겐하임 뮤지엄〉과 같은 상징성을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피터 쿡의 설계는 현실적으로 짓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구조 계획이 끝나고 시공 중에 있다. 또한 재료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세부 디테일에 관한 것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외피는 3개의 합성수지 막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간층이 '미디어 층'이라고 해서 네온 형태의 조명이 들어가서 낮과 밤에 건물을 달리 표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가 어느 정도 투과율과 반사율을 가진 재료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내부에서와 외부에서 건물은 항상 변화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답사 중 만난 현장의 책임자는 구조는 올해 말까지 완성될 것이고, 외피까지의 최종적인 완공은 2002년 9월이 될 것이라 했다.

이 외에 〈상 폴튼(St. Poelten) 음악당〉 등을 설계한 중견 건축가 클라우스 카다(K. Kada)의 〈비스트 기숙사(Studentenwohnhaus WIST)〉(1991년)와 폴커 기인케(V. Giencke)의 〈그라츠대학 식물원〉(1991년)과 〈칼 슈피츠 백 가세 주택(Wohnbaus Carl-Spitzweg-Gasse)〉(1993년)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답사를 마쳤다.

**젊은 건축가...** |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젊은 건축가와의 만남을 의도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주제는 '새로운 주거 형태'였다. 이에 따라 금번 행사의 비중을 젊은 건축가와의 만남 > 젊은 건축가의 활동 > 새로운 주거 형태에 두었다.

4박 5일 동안 젊은 건축가들과 그들의 작품 활동을 보았다. 베카카 드라이와 폴 아키텍츠는 건축을 평평하게 보려고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간의 수직적인 얽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구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철골의 성형, 공간의 구조적 해석,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의 관계 등의 문제를 더 보안할 것이다. 크베어크라프트는 건축주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의 현실적인 해법

을 찾는 과정에서 저렴하고 대처 가능한 건축 재료를 개발하면서도 수준 있는 건축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해나갈 것이다. 어떤 피쉬 역시도 계속 자신들의 건축적 접근인 도시적 랜드스케이핑으로 현상설계를 할 것이다. 당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게르너 게르너 플루스는 자신들의 첫 작품을 전시하는 가운데 그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건축주를 만나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색깔로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의 건축을 펼칠 수 있는 건축주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설 것이다. 베카카 츄바이도 7년이라는 계획 시간을 통해 완성한 〈자르파브리〉 이후 그 작품에 이끌린 건축주에 의해 또 다른 작품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들 혹은 건축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꼈던, 젊은 건축가로서 실천해야 할 바를 감히 말하고 싶다. 우선 첫째로 자신만의 건축의 풀이와 언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속에서 관심사와 가능성을 끌어내고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발전해 가는 시간의 선 위에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자신의 작품을 알아주는 건축주를 만날 때까지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살아남아야 하며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알릴 기회를 많이 갖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젊은 건축가로서 자신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번 만남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적극적인 만남이 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번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함은 당연한 과제로 남는다. 그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YEAA의 활동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말하는 젊은 건축가를 만들고, 이들이 서로 교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이다. ■



1, 2, 3, 4. 크베어크라프트(querkrafft), 〈SPS 주택(SPS Einfamilienhaus)〉  
 5. 한스 강골리(H. Gangoly), 〈하랄드 사이코(H. Seiko) 사무실〉, 1999년  
 6. 피터 쿡(P. Cook), 〈그라츠 아트홀〉, 2002년 9월 완공 예정  
 7. 클라우스 카다(K. Kada), 〈비스트 기숙사(Studentenwohnhaus WIST)〉, 1991년  
 8, 9. 폴커 기인케(V. Giencke), 〈칼 슈피츠 백 가세 주택(Wohnbaus Carl-Spitzweg-Gasse)〉, 1993년